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의 심리적 특성 및 교정심리치료 효과 비교*

김민아¹⁾ 차유진²⁾ 장영진³⁾ 곽승철⁴⁾ 송원영[†]

한국의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고, 교정시설 심리치료의 효과성과 집단 간 치료 반응 차이와 재범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5-2020년 전국 53개 교정시설 출소자 중 재범 자료가 확보된 16,37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범 493명과 강간범 6,416명을 선별하였다. 인구통계 및 범죄 관련 특성, 정적 재범위험성, 인지·정서적 변인을 분석했으며, t -검정, χ^2 검정, 다변량 분석, 반복측정 *MANOVA*를 실시하였다. 재범위험성은 알선범의 위험 수준이 강간범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에서 알선범은 강간범에 비해 자아 존중감, 분노표출, 충동성이 높았다. 반면 강간통념, 아동 성추행 신념, 고독감,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는 두 집단 모두 치료적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알선범에서 감소폭이 작아 치료 반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실제 재범률도 알선범에서 성범죄 재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성범죄자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범죄를 유지시키는 기제와 치료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간범의 경우 정서적 결핍과 인지 왜곡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동하는 반면, 알선범은 경제적 이득과 조직적 통제 중심의 도구적 범행 구조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성범죄자 치료를 단일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보다는 RNR원칙에 따라 범죄 유형별 위험요인과 반응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틀과 맞춤형 교정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성매매 알선범, 강간범, 심리적 특성, 교정심리치료, 재범

* 이 연구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포스터 발표로 제시되었음.

이 연구는 법무부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자료 일부를 활용하였음.

- 1)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 2)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
- 3)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 과정
-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교신저자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의학관 537호

E-mail: song@konyang.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의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자금 제공 등 간접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는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변종 형태로 다변화되며 구조적 은폐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인정과 보호 체계의 한계로 인해 관리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전윤정, 2024). 성매매 알선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별·연령·이주·경제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폭력, 통제, 심리적 외상 등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UNODC, 2024; Ottisova et al., 2016). 이는 성매매 범죄 예방과 개입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성범죄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성범죄자의 유형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위험기제와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고선영 등, 2004). 이에 성범죄자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은 모두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지만 범죄 동기와 위험기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강간범은 분노·지배욕·성인지 왜곡에 기반한 충동적 폭력성을 보이는 반면(한국여성상담센터, 2010; 허경미, 2009), 알선범은 경제적 이득과 구조적 착취 중심의 도구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높은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Edwards et al., 2021; Spidel et al., 2006). 해외 문헌과 정책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의 구별되는 특성이 보고되어 왔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성범죄자 범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와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CASOMB, 2020; Hargreaves-Cormany et al., 2016).

성범죄자 교정심리치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실제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Brown, 2005; 송원영, 2021).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위험 수준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된 단계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윤정숙 등, 2021).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행동치료 기반으로 인지 왜곡 수정, 공감 향상, 정서·행동 조절 및 재발방지 훈련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며(강요한, 송원영, 2022), 성인지 왜곡, 충동성, 공격성 감소와 자기통제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된다(윤정숙 등, 2020). 최근에는 교정심리치료 이후 재범률 변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곽승철 등, 2025; 차유진 등, 2025b), 성매매 알선범을 별도로 다룬 치료 프로그램과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내 성매매 알선범 연구는 주로 법·정책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으며(박찬걸, 2016; 조성용, 2017), 알선범의 심리적 특성이나 재범 위험요인을 다룬 교정·임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해외에서도 피해자 중심 연구가 주를 이루며, 알선 가해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알선범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선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집단 간 개념적 구분을 위해 형법과 관련 법률상 죄명을 기준으로 강간범은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직접 성폭력 범죄자로, 성매매 알선범은 알선·유인·강요 등 성착취매개 범죄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재범은 성범죄, 폭력범죄, 전체 범죄 재범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범죄 유형별 심리적 특성, 치료 반응, 재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RNR 원칙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 수준과 범죄 유발 요인으로서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교정심리치료의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 유형별로 차별화된 심리치료 개입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은 동일한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지만, 범죄의 동기와 심리적 유지 기제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교정심리치료에 대한 반응과 재범 양상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알선범과 강간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재범위험성은 서로 다를 것이다.

둘째, 알선범과 강간범의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이 다를 것이다.

셋째, 알선범과 강간범은 교정심리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다.

넷째, 알선범과 강간범의 재범률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연구절차

이 연구는 법무부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용역 자료 중 개인 식별정보가 삭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53개 교정시설 출소 성범죄자 16,378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범죄 관련 특성, 재범위험 요인, 심리적 특성 및 출소 후 재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재범위험 평가도구의 적용 대상과 성별 효과 통제를 고려하여 남성만 포함하였고, 집단 비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간범에서 교사·방조·음모 등 간접가담 범주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건 죄명을 기준으로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 6,90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피해자 연령은 법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알선범은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미확인이 많았고,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죄목이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20세 이상과 미확인을 합쳐서 분류하였다.

측정 도구

이 연구는 범죄 유지 기제를 반영하는 재범 위험 척도와 교정심리치료 효과 평가에 활용되는 인지적·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강준희, 권재환, 2021). 인지적 요인으로 강간통념(Malamuth & Check, 1981), 아동 성추행 관련 왜곡 신념(Bumby, 1996), 성을 이용한 대처행동이 있고(Cortoni & Marshall, 2001),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자아존중감(윤정숙 등, 2020)이 있다. 정서적 요인으로 분노표현(Lisak & Roth, 1988), 충동성(Watson & Tharp, 1993), 고독감(차유진, 2025a)이 있다.

정적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도구 (STATIC-99R)

Static-99R은 성인 남성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10개 정적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도구이다(Hanson & Thornton, 2000; Hanson et al., 2012).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 특성, 친밀관계 경험 등 과거 이력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며 총점에 따라 위험수준을 분류한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정적 재범위험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한림재범위험성평가도구

한림대학교 조은경(2010)이 개발한 HAGSOR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도구이다. 총 23문항으로 정적요인 10문항, 동적요인 13문항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정적요인 점수만 사용하여 집단 간 위험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자영 등(2009)이 타당화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개인의 전반적 자아 가치와 자기수용 정도를 측정하며, 본 연구 내적 합치도는 사전 .82, 사후 .83이었다.

강간통념

Burt(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타당화한 Rape Myth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강간 피해자와 강간 행위와 관련된 왜곡된 신념, 편견, 태도를 측정하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사전 .93, 사후 .95로 나타났다.

성을 이용한 대응

Coping Using Sex Inventory(K-CUSI)는 총 16문항으로,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 상황에서 성적 행위나 성적 공상을 대처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측정한다(Cortoni & Marshall, 2001). 이 연구에선 법무부(2022)에서 한국어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사전 .84, 사후 .81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행

Molest Scale은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태도를 측정하는 38문항 척도이다(Bumby, 1996). 이 연구에선 법무부(2022)에서 한국어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사전·사후 모두 .97으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는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의 강도 및 빈도,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하는지 평가하도록 구성된 척도이다. 분노 표출은 화가 나면 걸로 드러내는 것으로 화난 표정을 지어보인다거나 욕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 등이다. 분노 억제에는 화는 나 있지만, 걸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고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인 반응 양상으로 간주한다. 분노 통제에는 화가 난 상태를 지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정서적 자기조절을 반영하는 기능적 반응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선 역채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검구 외(2000)가 국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순으로, 분노 표출 .81과 .81, 분노 억제 .79와 .79, 분노 통제 .85과 .81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Barratt(1995)이 개발한 Barratt Impulsiveness Scale-II는 총 23문항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경향을 평가하는 도구이며, 인지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을 측정한다. 이 연구에선 이현수(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사전 .87, 사후 .89로 나타났다.

고독감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회적 유대감이나 정서적 친밀감이 결여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립감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선 김옥수(1997)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사전·사후 모두 .9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의 심리적 특성, 교정심리치료 반응 차이, 재범 현황 비교를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 및 범죄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및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정적 재범위험성 점수의 집단 차이는 등분산 가정 위배를 고려하여 Welch의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사전 점수를 활용한 심리적 특성의 집단 차이는 MANOVA로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표본 불균형을 고려하여 다변량 검정은 Pillai's Trace로 해석하였다. 교정심리치료 반응 차이는 반복측정 MANOVA (pre/post)로 검정하였고, 왜도·첨도, Box's M, Levene 검정으로 점검 후 다변량 효과를 해석하였으며 효과크기는 부분 에타제곱(partial η^2)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소 후 5년 재범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별 재범률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고 오즈비(odds ratio)를 산출하여 집단 간 재범률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알선범 집단과 강간범 집단의 범죄 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연령, 형기, 출소 연령을 비교하였다. 표 1은 알선범과 강간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제시한 결과이다.

알선범은 493명(3.3%), 강간범은 6,416명(39.2%)으로 나타났으며, 이 둘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자는 16,378명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알선범 피해자의 경우 13세 미만은 6명(1.2%), 19세 미만은 216명(43.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고, 20세 이상 및 미확인은 271명(55.0%)이었다. 반면, 강간범 피해자의 경우 13세 미만은 685명(10.7%), 19세 미만은 1,913명(29.8%), 20세 이상은 3,818명(59.5%)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연령이 알선범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형기의 평균 비교에서 알선범은 평균 형기는 22.91개월이고 강간범은 55.37개월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928.41) = -38.78, p < .001$). 출소 나이의 평균 비교에서 알선범의 평균 출소 나이는 33.01세이고, 강간범은 40.85세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39.21) = -16.95, p < .001$).

표 1. 인구통계학 특성 분석

종류	알선범			강간범			t/χ^2	(p)
	n (%)	M	(SD)	n (%)	M	(SD)		
13세 미만	6 (1.2%)			685 (10.7%)				
피해자 연령	14세~19세	216 (43.8%)		1,913 (29.8%)			71.	66***
	20세 이상 또는 미확인	271 (55.0%)		3,818 (59.5%)				
형기(개월)	493	22.91	(15.81)	6416	55.37	(35.22)	-38.	78***
출소나이(세)	493	33.01	(9.58)	6416	40.85	(12.97)	-16.	95***

주. * $p < .05$. ** $p < .01$. *** $p < .001$.

재범위험성 차이 분석

두 집단의 재범위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HAGSOR 정적요인과 Static-99R 점수를 비교하였다. 표 2는 집단 간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HAGSOR 정적요인 총점과 Static_99R 총점은 *Levene's test*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Welch's t-test*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HAGSOR 정적요인은 알선범($M=8.03$, $SD=2.43$)이 강간범($M=6.45$, $SD=2.7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60.58) = 9.71$, $p < .001$). Static_99R 총점도 알선범($M=4.39$, $SD=1.68$)이 강간범($M=3.22$, $SD=2.23$)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t(270.88) = 10.29$, $p < .001$).

알선범과 강간범의 심리적 특성 및 교정심리치료 반응 차이

두 집단의 범죄 유지 기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지적 심리 특성의 집단 차이와 교정심리치료 전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3은 인지적 요인에 대해, 사전 점수를 활용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와 사전-사후 점수의 반복 측정 *MANOVA* 결과이다.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심리적 특성 집단 차이와 교정심리치료 반응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와 반복측정 *MANOVA* 결과이다.

표 2. 재범위험성 평가 t검증

구분	알선범		강간범		t	(p)
	N	M (SD)	N	M (SD)		
HAGSOR 정적요인	236	8.03 (2.43)	5,595	6.45 (2.72)	9.71	***
Static-99R	236	4.39 (1.68)	5,614	3.22 (2.23)	10.29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알선범죄, 강간범죄의 심리적 특성 및 교정심리치료 반응 비교(인지적 요소)

인지적 요소	알선범죄 (n=209)		강간범죄 (n=3589)		주효과 (집단)		상호작용효과 (집단x시간)		
	M(SD)	Δ(post-pre)	M(SD)	Δ(post-pre)	F (p)	η ²	F (p)	η ²	
자아존중감	pre	32.20(4.50)		30.57(5.14)					
	post	34.09(4.37)	+1.89	32.61(4.96)	+2.01	22.37***	.006	0.16	.000
강간통념	pre	42.92(22.61)		47.80(26.21)					
	post	31.25(17.40)	-11.67	33.49(20.96)	-14.32	5.65*	.001	3.05	.001
성을 이용한 대응 행동	pre	20.56(4.69)		20.91(5.11)					
	post	20.45(5.21)	-0.04	19.94(4.43)	-0.97	0.75	.000	7.32**	.001
이동 성추행	pre	48.44(14.68)		50.43(16.34)					
	post	44.63(12.65)	-3.80	44.51(12.75)	-5.88	1.11	.000	3.90*	.001
Pillai's Trace									
		.304				.007		.003	
F(df ¹ , df ²) (p)		217.76 (8, 9720)***				6.38 (4, 3793)***		2.53 (4, 3793)*	
η ²						.007		.003	

주. *p < .05. **p < .01. ***p < .001.

표 4. 알선범죄, 강간범죄 심리적 특성 및 교정심리치료 반응 비교(정서적 요소)

정서적 요소	알선범죄 (n=209)		강간범죄 (n=3615)		주효과 (집단)		상호작용효과 (집단x시간)		
	M(SD)	Δ(post-pre)	M(SD)	Δ(post-pre)	F (p)	η ²	F (p)	η ²	
분노표출	pre	14.40(3.49)		13.27(3.36)					
	post	14.43(3.44)	+0.03	12.90(3.35)	-0.38	38.57***	.010	3.27	.001
분노억제	pre	12.58(3.47)		13.32(3.71)					
	post	12.38(3.59)	-0.20	12.66(3.59)	-0.66	4.92*	.001	3.79	.001
분노통제	pre	21.66(4.49)		22.21(4.72)					
	post	22.00(4.95)	+0.34	22.93(4.99)	+0.72	5.59*	.001	1.51	.000
충동성	pre	32.47(13.17)		29.21(12.13)					
	post	31.93(13.33)	-0.54	26.00(12.80)	-3.20	31.09***	.008	15.85***	.004
고독감	pre	32.13(7.77)		35.08(9.76)					
	post	31.29(8.05)	-0.84	32.75(9.51)	-2.33	12.25***	.003	8.52**	.002
Pillai's Trace									
		.461				.032		.005	
F(df ¹ , df ²) (p)		291.97 (10, 9748)***				25.40(5, 3818)***		3.72(5, 3818)***	
η ²						.032		.005	

주. *p < .05. **p < .01. ***p < .001.

심리적 특성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결과, 재범 위험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의 경우엔 $Pillai's Trace = .304, R(8, 9720) = 217.76, p < .001$ 였고, 정서적 요인의 경우엔 $Pillai's Trace = .461, R(10, 9748) = 291.97, p < .001$ 로 나타났다. 사전 점수로 알아본 심리적 특성의 차이로 우선, 인지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에서는 알선범이 강간범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강간통념은 알선범이 강간범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성추행 신념에서도 알선범이 강간범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성을 이용한 대응 행동에서는 둘 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요인에서는 분노 표출이 알선범이 강간범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억제의 경우엔 강간범이 알선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분노통제도 강간범이 알선범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충동성의 경우엔 알선범이 강간범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감은 강간범이 알선범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교정심리치료에 대한 반응 차이로, 인지적 요소의 집단 주효과 통계량은 $Pillai's Trace = .007, F = 6.38(4, 3793), p < .001, \eta^2 = .007$ 이었고 시점 주효과 통계량은 $Pillai's Trace = .101, F = 107.03(4, 3793), p < .001, \eta^2 = .101$ 이었으며, 집단x시점 상호작용효과 통계량은 $Pillai's Trace = .003, F = 2.53(4, 3793), p < .05, \eta^2 = .003$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집단 간 주효과($F = 22.37, p < .001, \eta^2 = .006$)와 시점에 대한 주효과($F = 174.51, p < .001, \eta^2 = .044$)가 모두 유의하였고, 심리치료에서 알선범 1.89와 강간범 2.01 만큼 증가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강간통념은 집단 간 주효과($F = 5.65, p < .01, \eta^2 = .001$)와

시점에 대한 주효과($F = 295.61, p < .001, \eta^2 = .072$), 및 상호작용 효과($F = 3.05, p < .01, \eta^2 = .001$) 모두 유의하였다. 심리치료에서 알선범은 11.67만큼, 강간범은 14.32만큼 감소하였다. 성에 대한 대응 행동에서는 집단 간 주효과는 없고, 시점에 대한 주효과($F = 11.33, p < .001, \eta^2 = .003$)와 상호작용 효과($F = 7.32, p < .01, \eta^2 = .002$)가 유의하였다. 아동성추행 신념의 집단 주효과는 없고, 시점에 대한 주효과($F = 83.28, p < .001, \eta^2 = .021$)와 상호작용 효과($F = 3.90, p < .05, \eta^2 = .001$)가 유의하여서 알선범 3.80만큼, 강간범 5.88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정서적 요소의 집단 주효과 통계량은 $Pillai's Trace = .032, F = 25.40(5, 3818), p < .001, \eta^2 = .032$ 이었고 시점 주효과 통계량은 $Pillai's Trace = .015, F = 11.43(5, 3818), p < .001, \eta^2 = .015$ 이었으며, 집단x시점 상호작용효과 통계량은 $Pillai's Trace = .005, F = 3.72(5, 3818), p < .001, \eta^2 = .005$ 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의 경우, 집단 간 주효과($F = 38.57, p < .001, \eta^2 = .010$)는 유의하였고, 시점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분노억제는 집단 간 주효과($F = 4.92, p < .05, \eta^2 = .001$)와 시점에 대한 주효과($F = 13.20, p < .001, \eta^2 = .003$)가 있었고 알선범은 0.20만큼, 강간범은 0.66만큼 감소했고,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분노통제의 집단 간 주효과($F = 5.59, p < .01, \eta^2 = .001$)와 시점에 대한 주효과($F = 12.97, p < .001, \eta^2 = .003$)가 있었고 알선범은 0.34만큼, 강간범은 0.72만큼 증가하여 분노통제를 잘하게 되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충동성은 집단 간 주효과($F = 31.09, p < .001, \eta^2 = .008$), 시점 주효과($F = 31.05, p < .001, \eta^2 = .008$),

.001, $\eta^2 = .008$), 상호작용효과($F = 15.85, p < .001, \eta^2 = .004$)가 있었고, 알선범은 0.54만큼, 강간범은 3.20만큼 감소하였다. 고독감은 집단 간 주효과($F = 12.25, p < .001, \eta^2 = .003$), 시점 주효과($F = 39.01, p < .001, \eta^2 = .010$), 상호작용효과($F = 8.52, p < .01, \eta^2 = .002$)가 있었고, 알선범은 0.84만큼, 강간범은 2.33만큼 감소하였다.

알선범과 강간범의 실제 재범률

심리 특성과 재범위험 결과가 실제 재범 양상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소 후 5년간 재범률을 추적하였다. 표 5는 재범 유형별 집단 차이를 보여준다.

성범죄 재범은 알선범이 15.4%, 강간범이 8.2%로 알선범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알선범의 성범죄 재범 오즈는 강간범보다 약 2.04배 높았다($\chi^2(1)=4.90, p=.02, OR=2.04, 95\% CI=1.07 - 3.86$). 반면 폭력범죄 재범은 강간범(13.0%)에서, 전체범죄 재범은 알선범(3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는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의 심리적 특성과 교정심리치료의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범죄 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 관련 특성은 알선범과 강간범이 동일한 성범죄자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치료 대상의 형태와 맥락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알선범은 강간범에 비해 형기가 짧고 출소 시 연령이 낮았으며, 피해자 연령 분포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치료 방향뿐 아니라 출소 후 환경 노출 및 재범 관리에서도 집단별 접근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알선범과 강간범은 HAGSOR 정적요인과 Static-99R에서 집단 차이가 확인되었고, 알선범의 정적 재범위험요인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면적으로 알선범의 성적 재범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Static-99R은 본래 비동의 범죄 전력이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며 성매매·포주 관련 단독 유

표 5. 출소 후 5년간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률 및 재범 가능성 차이 (N=3,159)

재범 유형	재범 유무	알선범		강간범		χ^2	p	OR
		%	(n)	%	(n)			
성범죄	Y	15.4%	(12)	8.2%	(126)	4.90	.02	2.04[1.07-3.86]
	N	84.6%	(66)	91.8%	(1,411)			
폭력범죄	Y	6.4%	(5)	13.0%	(200)	2.92	.08	2.18[0.87-5.47]
	N	93.6%	(73)	87.0%	(1,337)			
전체범죄	Y	32.1%	(25)	23.9%	(368)	2.65	.10	1.50[0.91-2.44]
	N	67.9%	(53)	76.1%	(1,169)			

죄자에 대해서는 적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henix et al., 2016). 또한 이 도구는 과거 유죄 전력, 비친밀 피해 구조, 반복적 범죄 경력과 같은 누적적·구조적 위험 특성에 민감하며, 이러한 요소는 알선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관찰된다(CASOMB, 2020; Dank et al.,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된 Static-99R 점수 차이는 단순한 성적 재범위험 차이라기보다 두 집단의 범죄 구조와 경력 패턴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평균 차이를 넘어 각 범죄를 지탱하는 심리적 특성의 차이도 보여준다. 인지적 요인에서 강간통념과 아동 성추행 신념은 모두 알선범이 강간범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집단이 상이한 범죄 유지 기제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간범에게 전형적 성인지 왜곡이 핵심 위험요인으로 작동하는 반면, 알선범은 도구적 착취, 경제적 동기, 조직적 통제와 같은 반사회적 위험기제가 더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는 알선범에게 나타난 높은 반사회성 및 정신병질 특성 연구(Edwards et al., 2021)와 알선범을 경제적 이득과 통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위자로 본 Giobbe(1993)의 분석과도 부합한다. 국내에서도 정신병질이 반사회적 성향, 범죄위험성 및 재범예측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수정, 허재홍, 2004), 알선범의 범행은 성인지 왜곡 중심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우며 반사회적·도구적 특성의 맥락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알선범에게 현재 운영되는 인지 왜곡 수정 중심의 성범죄자 치료모델이 핵심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보다 차별화된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아존중감은 알선범이 강

간범보다 높았으며, 이는 조직적 통제와 수익 추구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고양적 과대 자기평가와 관련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May et al., 2000; Raskin et al., 1991). 이는 알선범이 자신을 '가해자'보다 '관리자'로 인식한다는 Giobbe(1993)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정서적 요인에서도 집단별 심리적 특성 차이가 분명했다. 강간범은 분노표출과 충동성은 낮고 고독감은 높게 나타나, 고독감과 친밀감 결핍이 핵심 위험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차유진 등, 2025a; Marshall, 1993). 반면 알선범은 분노표출과 충동성이 높고 고독감은 낮아, 정서적 결핍보다는 다른 동기 기반의 범행 특성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알선범은 폭력과 강압적 통제를 통해 피해자의 복종을 확보하는 경향이 보고되며(May et al., 2000; Raphael et al., 2010; Stalans & Finn, 2019), 이는 알선범의 정서적 특성이 기회·이득·통제와 결합된 행동적 위험기제와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범행 구조는 행동·정보·사고·정서 통제를 강조하는 BITE 모델(Hassan, 2020)과도 부합하며 알선범의 범행이 충동적 일탈보다 지속적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통제 구조와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강간범은 정서적 결핍 축이, 알선범은 권력과 통제 중심의 외현화 위험 축이 더 두드러지는 상이한 위험기제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선범과 강간범의 교정심리치료에서의 반응 차이 분석에 대해 반복측정 MANOVA 결과, 두 집단 모두 일부 인지적 요인은 치료 이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자존감은 증가하고 강간통념과 아동성추행 신념은 감소하여 현행 교정심리치료가 일부 인지적·태도 변인에 대해서는 전반적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러나 치료 반응의 크기와 양상은 집단 간 동일하지 않았다. 충동성과 고독감의 변화는 강간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알선범 집단에서는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고 분노표출은 미세한 증가를 보여 정서·행동 변인 전반에서 반응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강간통념과 성을 이용한 대응 행동의 감소폭 역시 강간범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 치료 효과가 강간범 집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는 교정심리치료의 핵심 표적과 알선범의 실제 범죄 유지 기제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강간범 집단은 높은 고독감과 치료 이후 큰 감소폭을 보여 현재 프로그램이 왜곡된 성인지와 정서적 결핍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음이 시사되었다(강춘희, 권재환, 2021; 윤정숙 등, 2020; 차유진 등, 2025b). 반면 알선범의 제한적 변화는 충동성과 분노가 범행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조직적 통제와 경제적 이득 추구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동원되는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May et al., 2000; Williamson & Cluse-Tolar, 2002). Giobbe(1993)도 성매매 알선범의 범죄를 왜곡된 성인지나 충동 조절 실패보다 경제적 이득과 조직적 통제의 산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선범은 충동성 조절이나 분노 관리의 표면적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기존 치료의 핵심 표적과 실제 위험기제가 충분히 부합하지 않아 치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교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강간범 중심의 Risk-Need-Responsivity 구조에 더 잘 부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성추행 신념은 두 집단 모두 감소하였으나 집단×시점 상호작용 효과가 작아 피해자

연령을 반영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간범 집단에서는 피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사전 아동성추행 신념이 높고 치료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왜곡 신념이 아동 대상 범죄 유지 기제와 관련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알선범 집단은 전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서 유사한 감소 양상을 보여, 두 집단을 동일한 성범죄 인지 구조로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 특성에 따라 위험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알선범의 13세 미만 피해자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평균이 매우 낮고 사후 평균이 상승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해당 셀의 표본 수가 극히 적어(n=4) 소수 사례의 응답에 평균이 크게 좌우되었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점은 축소 보고나 방어적 반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신병질 특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 인상관리를 통해 부정적 내용을 축소 보고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Gillard & Rogers, 2015). 아울러 이러한 상승은 회귀-평균과 같은 통계적 변동의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인지 왜곡의 악화라기보다 측정 및 표본 특성에 기인한 예외적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더 큰 표본과 반응타당도 지표를 포함하여 13세 미만을 피해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범 집단의 특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범 현황에서 알선범은 성범죄 재범에서 강간범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서 알선범의 재범 위험이 전통적 성폭력 범죄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폭력범죄 재범은 강간범에서, 전체범죄 재범은 알선범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향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수준 자체의 모순이라기보다 위험이 발현되는 경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강간범의 위험이 인지적 왜곡, 분노 및 충동조절 실패, 친밀감 결핍과 관련된 외현적 폭력 경로로 나타난다면, 알선범의 위험은 경제적 이득 추구하고 조직적 통제에 기반된 도구적·구조적 재범 경로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알선범은 전통적 성인지 왜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알선범의 재범이 기존 성범죄 왜곡 기제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도구적 착취 및 조직적 범죄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위험기제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알선범의 높은 정적 재범위험 점수가 직접적 폭력성뿐 아니라 조직적·반복적 범죄 지속 위험을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일한 위험 수준이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그 의미와 발현 양상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매매 알선범과 강간범은 동일한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심리적 특성, 범죄 유지 기제 및 치료 반응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범죄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알선범의 범행이 경제적 이득과 조직적 통제 맥락에서 유지된다면 현행 단일 성범죄자 치료모델은 핵심 위험요인을 충분히 표적화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RNR 원칙(Risk-Need-Responsivity Model)에 기반하여 알선범의 위험기제와 반응 특성을 반영한 정밀화된 교정심리치료 개발이 요구된다(Hanson et al., 2009). 또한 알선범은 출소 이후 범죄 네트워크, 온라인 접촉경로, 경제적

유인에 재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 내 개입만으로 재범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알선범 특화 개입과 출소 후 구조적 연계가 요구되며, 이는 재범 억제뿐 아니라 착취 구조 약화와 잠재 피해 예방이라는 점에서 공공정책적 의의도 갖는다. 특히 한국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지원 또한 매년 증가하며, 가장 많은 유입 경로가 채팅앱·SNS 등 온라인 매개 접촉으로 보고되는 점은 알선범 재범 억제가 곧 청소년 피해 예방과 직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성매매가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프레이밍 될 경우 강압적 통제와 착취 구조가 가려지고, 피해자 비난이나 알선행위의 정당화가 강화될 위험이 있다(Cunningham & Cromer, 2016; Sprankle et al., 2018). 따라서 재범예방은 사후 처벌을 넘어 알선행위를 유지시키는 심리·행동 기제와 재노출 환경을 표적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선범에 대한 치료 개입은 개인의 재범 억제를 넘어 착취 구조를 약화시키고 잠재 피해를 줄이는 예방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거래'가 아닌 성착취·폭력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크기의 불균형과 알선범 집단의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은 일부 효과 크기 추정과 집단 이질성 반영에 제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탐색적으로 해석하거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균형 표본 기반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측정 변인이 자기보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축소 보고로 인해 치료 전후 변화가 과대 또는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치료자 평정, 임상

면담, 행동지표 및 사후관리 자료를 포함한 교차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범죄 이외의 전과 및 동반 범죄, 경제적 동기 등 알선범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범죄 맥락 변수와 경로 모형 검증을 통해 재범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RNR 원칙에 근거한 알선범 특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동기강화, 인지·도덕 재구조화, 통제 전략 해제, 출소 후 재노출 관리 연계 등의 효과를 추적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요한, 송원영 (2022).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국내 문헌들을 중심으로. *矯正研究*, 32(1), 155-184.
- 강춘희, 권재환 (2021). 재범위험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충동성, 분노 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07-719.
- 고선영, 이수정, 양종희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특집호), 117-146
- 곽승철, 김민아, 차유진, 장영진, 송원영 (2025). 관음증과 노출증 성향 남성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 강간 및 추행과의 비교. *교정연구*, 35(2), 161-191.
- 김옥수 (1997). 외로움(Loneliness)의 개념분석. *간호과학*, 9(2), 29-38.
- 박찬걸 (2016).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 처분의 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 27(3), 315-348.
- 법무부 (2022).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용역보고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송원영 (2021). 성범죄자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윤정숙, 김민영, 이태현 (2020).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47.
- 윤정숙, 성유리, 이태현 (2021).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66.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수정, 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psychopathy).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39-77.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현수 (1992). 충동성검사. 한국가이던스.
-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1), 33-50.
- 전윤정 (2024).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NARS 입법·정책,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
- 조성용 (20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8(1), 5-47.
- 조은경 (2010).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개발.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차유진, 최재광, 송원영 (2025a). 교정시설 심리 치료 프로그램 과정 등급 구분에 따른 성범죄 재범 비교. *교정담론*, 19(2), 149-178.
- 차유진, 문기훈, 김민아, 곽승철, 장영진, 송원영 (2025b). 친족·비친족 아동 대상 및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특성과 심리치료 효과성 비교. *교정담론*, 19(3), 129-158.
- 한국여성상담센터 (2010).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보고 2010-39).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 (여성인권-단행본-2026-00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허경미 (2009). 강간범의 성적 태도 및 심리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2(1), 97-124.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6), 768-774.
- Brown, S. (2005). *Treating sex offenders: An introduction to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s*. Willan.
- Bumby, K. M. (1996). Assessing the cognitive distortions of child molesters and rapis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OLEST and RAPE scal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1), 37-54.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California Sex Offender Management Board (CASOMB). (2020). *Sex traffickers and buyers of commercially sexually exploited children*. https://casomb.org/pdf/SEX_TRAFFICKERS_AND_BUYERS_2020_1_71.pdf
- Cortoni, F., & Marshall, W. L. (2001). Sex as a coping strategy and its relationship to juvenile sexual history and intimacy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1), 27-43.
- Cunningham, K. C., & Cromer, L. D. (2016). Attitudes about human trafficking: Individual differences related to belief and victim blam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2), 228-244.
- Dank, M. L., Khan, B., Downey, P. M., Kotonias, C., Mayer, D., Owens, C., & Yu, L. (2014). *Estimating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underground commercial sex economy in eight major US cities*. Urban Institute.
- Edwards, B. G., Mills, J. L., Reynolds, B. L., Verona, E., & Kiehl, K. A. (2021). Psychopathy and substance use in relation to prostitution and pimping among women offender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2(5), 411-420.
- Gillard, N. D., & Rogers, R. (2015). Denial of risk: The effects of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on risk assessments for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42, 106-113.
- Giobbe, E. (1993). An analysis of individu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pimping. *Michigan Journal of Gender & Law*, 1(1), 33-57.
- Hanson, R. K., & Thornton, D. (2000). Improving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three actuarial scales. *Law and Human Behavior*, 24(1), 119-136.

- Hanson, R. K., Bourgon, G., Helmus, L., & Hodgson, S. (2009). The principles of effective correctional treatment also apply to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9), 865-891.
- Hanson, R. K., Babchishin, K. M., Helmus, L., & Thornton, D. (2012). Quantifying the relative risk of sex offenders: Risk ratios for Static-99R.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5*(5), 482-515.
- Hargreaves-Cormany, H. A., Patterson, T. D., & Muirhead, Y. E. (2016). A typology of offenders engaging in the sex trafficking of juveniles (STJ):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0*, 40-47.
- Hassan, S. A. (2020). *The BITE model of authoritarian control: Undue influence, thought reform, brainwashing, mind control, trafficking and the law*.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 Lisak, D., & Roth, S. (1988). Motivational factors in nonincarcerated sexually aggressive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795-802.
- Malamuth, N., & Check, J. V. P. (1981). Rape Attitudes and Sexual Arousal as Predictors of Non-Deviants' Aggression Against Women. In *Annual Meetings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Marshall, W. L. (1993). The role of attachments, intimacy, and loneliness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sexual offending. *Sexual and Marital Therapy, 8*(2), 109-121.
- May, T., Harocopos, A., Hough, J. M., & Willis, C. F. (2000). *For love or money: Pimps and the management of sex work*. Home Office.
- Ottisova, L., Hemmings, S., Howard, L. M., Zimmerman, C., & Oram, S. (2016). Prevalence and risk of violence and mental, physical and sexual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human trafficking: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25*(4), 317-341.
- Phenix, A., Fernandez, Y., Harris, A. J. R., Helmus, L. M., Hanson, R. K., & Thornton, D. (2016). *Static-99R coding rules, revised-2016*. Public Safety Canada.
- Raphael, J., Reichert, J. A., & Powers, M. (2010). Pimp control and violence: Domestic sex trafficking of Chicago women and girls. *Women & Criminal Justice, 20*(1-2), 89-104.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
- Spidel, A., Greaves, C., Cooper, B. S., Hervé, H., Hare, R. D., & Yuille, J. C. (2006). The psychopath as pimp. *The Canadian Journal of Police & Security Services, 4*(4), 193-199.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talans, L. J., & Finn, M. A. (2019). Defining and

- predicting pimps' coerciveness toward sex workers: Socialization process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4(21-22), 4498-4521.
- Sprinkle, E., Bloomquist, K., Butcher, C., Gleason, N., & Schaefer, Z. (2018). The role of sex work stigma in victim blaming and empathy of sexual assault survivors.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5(3), 242-248.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24).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24*. United Nations.
- Watson, D. L., & Tharp, R. G. (1993). *Self-directed behavior: Self-modification for personal adjustment*.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 Williamson, C., & Cluse-Tolar, T. (2002). Pimp-controlled prostitution: Still an integral part of street life. *Violence Against Women*, 8(9), 1074-1092.

논문 투고일 : 2026. 03. 14
1 차 심사일 : 2026. 04. 20
게재 확정일 : 2026. 05. 0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rrectional Treatment Outcomes of Sex Trafficking Facilitators and Rapists in Korea

Kim Minah¹⁾ Cha Yujin¹⁾ Chang Youngjin¹⁾ Kwag Seungchul²⁾ Song Wonyoung⁴⁾

¹⁾Konyang University ²⁾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³⁾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x trafficking facilitators and rapists in Korea, and examined differences in treatment responses to correctional psychological programs and recidivism outcomes. The sample included 493 facilitators and 6,416 rapists selected from 16,378 individuals released from 53 correctional institutions between 2015 and 2020. Demographics and offense-related characteristics, static recidivism risk, and cognitive-emotional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tests, χ^2 tests, multivariate analyses, and repeated-measures MANOVA. Facilitators showed higher recidivism risk levels than rapists. Psychologically, facilitators scored higher on self-esteem, anger expression, and impulsivity, while scoring lower on rape myth acceptance, child molestation beliefs, loneliness, anger suppression, and anger control. Although therapeutic change was observed in both groups following treatment, facilitators demonstrated smaller improvements across several variables, indicating relatively limited treatment responsiveness. Follow-up data also revealed higher rates of sexual reoffending among facilita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within the same sexual offender category, the mechanisms sustaining criminal behavior and the nature of treatment needs may differ substantially. While emotional deficits and cognitive distortions appear to function as primary risk factors among rapists, facilitators' offending may b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economic motives and an instrumental offending structure centered on organized control. Accordingly, differentiated assessment frameworks and tailored correctional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s are needed based on offense-type-specific risk factors and responsivity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Risk-Need-Responsivity (RNR) principle.

Key words : sex trafficking facilitators, rapists, correctional psychological treatm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cidivism